

아쉬움 잠시 뒤로 다시 뛰는 벤투호 황희찬 출격 대비

가나전 2-3석패 후 H조 3위 포르투갈과 3차전 준비 시작

벤투호가 가나전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바로 포르투갈과의 결전 준비에 들어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29일 오후(한국시간)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포르투갈전을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은 지난달 28일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가나에 2-3으로 석패했다.

전반에만 먼저 두 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13분과 16분 조규성이 연달아 헤딩 골을 터트리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다시 한 골을 내주고 무릎을 꿇었다.

우루과이전 0-0 무승부에 이어 1무 1패(승점 1)가 된 한국은 2승, 승점 6으로 H조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된 포르투갈과 1승 1패(승점 3)의 가나에 이어 조 3위로 밀렸다.

목표로 한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12월 3일 오전 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무조건 이긴 뒤 같은 시간 키오프할 우루과이-가나전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처지다. 대표팀은 이날 1시간여 진행된 훈련을 모두 취재진에 공개했다. 훈련장에 나온 선수들 전원은 벤투 감독과 10여 분 미팅을 한 뒤 두 개조로 나누어 훈련을 시작했다.

가나전 멀티골의 주인공인 조규성을 비롯해 주장 손흥민(토트넘), 수비의 핵심 김민재(나폴리) 등 전날 선발 출전했던 11명과 후반 시작하며 교체 투입된 나상호(서울)까지 12명은 따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들은 30여 분 자전거를 타고 스트레칭 등을 한 뒤 동료들의 훈련을 지켜보다 먼저 속속로 돌아갔다.

예비 멤버(오현규)를 포함한 나머지 15명의 선수는 패스 연습과 미니게임 등으로 훈련을 이어갔다.

가나전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뒤 1분 만에 날카로운 크로스로 조규성의 첫 골을 어시스트한 이강인(마요르카)은 패스 연습까지 한 뒤 먼저 훈련을 마쳤다.

이후 골키퍼를 포함한 14명의 선수가 7명씩 나눠 미니게임을 했다.

소속팀에서 당한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이 더뎠던 이강인(마요르카)은 패스 연습까지 한 뒤 먼저 훈련을 마쳤다. 이후 골키퍼를 포함한 14명의 선수가 7명씩 나눠 미니게임을 했다.

소속팀에서 당한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이 더뎠던 이강인(마요르카)은 패스 연습까지 한 뒤 먼저 훈련을 마쳤다.

황희찬은 마지막으로 황의조 등과 함께 몇 차례 슈팅을 시도한 뒤 훈련을 마무리했다.



FIFA WORLD CUP Qatar 2022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 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의 황희찬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준비한 것 보여주면 멋지게 승리”

스페인 마르카와 인터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 막내 이강인(21·마요르카)은 첫 월드컵 출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낸다.

H조 조별리그 1차전인 우루과이전과 2차전 가나전 모두 후반 교체 출전했는데, 가나전은 0-2로 끌려가던 후반 12분 교체 투입돼 1분 만에 조규성(전북)의 만회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강인이 뛰는 스페인은 월드컵에서 ‘경

합치’를 받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의 활약을 주목한다.

이강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스포츠 일간지 마르카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준 높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뛰 경험은 월드컵에서 도움이 된다. 최고 수준의 경기력에 익숙해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 팬들은 12월 3일 자정에 열릴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강인이 이패스하고, 손흥민이 해결하는’ 장면을 꿈꾼다.

H조 1무 1패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



이강인

인 한국은 강호 포르투갈을 반드시 잡아 야 16강 진출을 바라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을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라고 꼽은 이강인은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테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 우리는 잘

싸웠다.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잘 보여주면 멋지게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마요르카 팬들은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강인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연합뉴스

“패배의식 털어내 팀 분위기 쇄신”

이경수 페퍼저축은행 감독대행 오늘 도로공사전 집중력 강조

이경수 페퍼저축은행 감독대행(43)이 1일 열리는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분위기를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감독대행은 지난달 29일 자진사퇴를 선언한 김형실 감독을 대신해 페퍼저축은행 감독대행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이경수 페퍼저축은행 감독대행은 지난달 30일 “김형실 감독님의 사임 의사는 그제께(28일) 저녁에 들었다. 도로공사전을 앞두고 광주로 출발하는 날, 구단측과 단장에 가서 감독대행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도 있고 어린 선수들을 잘 다독여주셨던 김형실 감독님의 노고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 개막 10연패 중인 페퍼저축은행은 순위표 가장 밑바닥에 있다. 지난달 5일 KGC인삼공사와의 플레이오프 2-3으로 승점 1점을 따낸 이후에도 첫승 소식은 없었다. 남녀부를 통틀어도 개막 이후 승리가 없는 것은 페퍼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이 감독대행은 팀의 가장 보완할 점에 대해 ‘공격집중력’을 꼽았다.

그는 “어느 팀이나 중요하지만 배구는 리시브가 잘 돼야 모든 플레이가 잘 된다. 우리 팀이 다른 팀에 비해 리시브 효율이 떨어진다. 서비스를 강하게 때려서 상대를 압도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범실로 상대팀에게 점수를 헌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에게는 책임감 있는 경기를 당부했다.

이 감독대행은 “점수를 내야 할 상황에



이경수 /페퍼저축은행 제공

서 득점을 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하게 된다. 선수들의 역할은 물론, 공 하나하나를 대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본인의 위치에서 해야 할 몫을 잘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대행은 1일 한국도로공사전부터 팀을 지휘하게 됐다.

이날 질 경우 페퍼저축은행은 개막 최다 연패 불명예 타이틀 떠안게 돼 부담감이 크다. 이 감독대행은 “최근 연패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침체됐다. 선수들도 1승에 목말라 있지만 너무 갈구하고 긴장하다 보면 경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패배의식을 좀 털어내고 다시 신나는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다. 재미있고 끈끈한 페퍼만의 배구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조혜원 기자

KIA, 우완 투수 손 앤더슨 영입

최고 154km 강속구 강점

KIA 타이거즈가 강력한 구위의 외국인 우완투수 손 앤더슨(28·우투우타)을 영입했다.

KIA는 30일 손 앤더슨과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미국 플로리다주 코랄 스프링스 출신인 손 앤더슨은 우완 투수로 신장 193cm 체중 102kg의 체격을 갖췄다.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6시즌 동안 활동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63경기에 출장 3승 5패 평균자책점 5.84를 기록했으며, 마

이너리그에서는 113경기(선발 72경기)에 나서 24승 17패 2세이브 8홀드 평균자책점 3.72를 기록했다.

올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1경기에 출장,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8.0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트리플A)에서는 36경기(선발 15경기)에 나서 8이닝을 던지며 3승 3패 평균자책점 3.58을 기록했다.

손 앤더슨은 큰 키에서 내려 쫓는 최고 시속 154km의 빠른 공이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슬라이더와 투심 패스트볼, 커브, 체인지업 등을 섞어 던지며 특히 빠른 투구 템포와 강력한 구위로 이닝 소화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혜원 기자



새 외국인 투수 손 앤더슨이 계약을 마친 뒤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해란,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 출격

오는 11일까지 총 8라운드

이미향 등 한국 선수 8명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가 1일부터 11일까지 총 8라운드에 걸쳐 열린다.

2023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놓고 100명이 겨루는 이 대회는 먼저 12월 1일부터 나흘간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코스에서 4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상위 70명이 2주 차 경기에 진출한다.

2주 차 경기는 12월 8일부터 나흘간 미국 앨라배마주 도선의 하일랜드 오코스 골프코스에서 열린다.

총 8라운드 경기를 치러 상위 20명이 2023시즌 LPGA 투어 출전권을 얻고, 이

후 45위까지는 조건부 출전권을 갖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국적 선수가 총 8명 출전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지난해 신인상을 받고 올해 대상과 평균 타수 2위에 오른 유해란(21)이 미국 진출 도전을 단념했다.

KLPGA 투어 5승이 있는 유해란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LPGA 투어에 가서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에서는 안나린(26)이 1위, 최혜진(23)이 3위를 차지해 미국 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유해란은 KLPGA 투어 2022시즌이 끝난 뒤 이벤트 대회로 열렸던 지난 20일 LF 헤지스 포인트 왕중왕전에서 우승하는 등



유해란

좋은 감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퀄리파잉 시리즈에는 유해란 외에 LPGA 투어 통산 2승의 이미향(29)도 출전한다.

2014년 미즈노 클래식, 2017년 스토크랜드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던 이미향은 2022시즌 LPGA 투어 상금 순위 125위로 밀려 퀄리파잉 시리즈를 거치게 됐다.

홍예은(20), 전지원(25), 강민지(23), 이슬기(21), 박금강(21), 윤민아(19)도 이번 퀄리파잉 시리즈에서 다음 시즌 LPGA 투어 출전권 획득에 도전한다.

전지원은 2020년, 홍예은은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했던 선수들이다. 박금강은 LPGA 2부 투어에서 2승을 거둔 경력이 있다. /연합뉴스